

LG이노텍, 매출 목표 2조3000억원

생존 ·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... LED 축으로 소자 · 시스템 사업 확대

LG이노텍은 2009년 경영기조를 <생존과 지속가능한 기업(Survival & Sustainable company) 기반 구축>으로 정하고 경영목표를 매출 2조3000억원 달성으로 설정했다.

허영호 사장은 “고객과 시장 변화에 한 걸음 앞서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”며 “생존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선, 수익체질 강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, 고객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특히,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LED(발광다이오드) 사업의 경쟁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태양광 인버터, 차량용 BMS(Battery Management System) 등 소자 및 시스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.

이밖에도 경영활동 전 분야에서 현금 창출을 극대화하며, 외부판매를 30% 이상 성장시키고 고객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1/05>